

전세계 책벌레들이 찾아오는 명소

영국 웨일즈 지방의 책마을 '하이-온-와이'를 둘러보고

박상준

기획번역가

책방마다 즐비한 도서관 규모의 서가에서 마음대로 책을 꺼내보다가, 맘에 드는 걸 발견하면 얼마든지 구입해서 내 책으로 만들 수 있다. 아침이면 새 소리에 잠이 깨고, 하루종일 책을 고르다 싫증이 나면 도시냄새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전원에서 산책을 즐긴다.

수백년 묵은 성곽과 교회, 고색창연한 벤치가 이따금 놓여 있는 강변의 산책로, 양떼가 평화롭게 노니는 들판. 이렇게 한 달을 지내도 아직 볼 책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처럼 책벌레들에게 꿈같은 장소라 할 만한 곳이 있다.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현 책방들을 찾아다니다가, 말로만 들어오며 몇 년을 버려던 곳을 드디어 다녀왔다. 그 곳은 영국 웨일즈 지방의 책마을 '하이-온-와이(Hay-On-Wye)'이다.

런던과 옥스퍼드를 거쳐 하이-온-와이까지 최소 열흘 정도의 시간만 날 수 있다면 알차게 돌아볼 수 있는 영국의 현책방을 소개한다.

여성·추리·사진 등 전문서점 많아

먼저 런던에서는 채링 크로스 로드(Charing Cross Road)와 대영박물관 앞, 이 두 군데에 현책방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채링 크로스 로드엔 '딜론'(Dillons)이나 '포일즈'(Foyle's)같은 초대형 신간 서점도 있으므로 이 거리만 훑어도 충분히 뿌듯하다. 참고로 지하철은 채링 크로스 로드 역이 아니라 레스터 스퀘어(Leicester Square)역에서 내린다. 역에서 나가면 바로 현책방들이 보인다.

채링 크로스 로드엔 지하 골방에서 책들에 파묻혀 시간가는 줄 모를 현책방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으며, 여성학 전문인 '실버문'(Silver Moon)이나 추리·SF 전문인 '머더 원'(murder one)처럼 전문서점들도 많다. 책방마다 웬만큼 뒤져보려면 하루이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영박물관 바로 앞동네엔 동양관계 서적들과 인문사회과학 각 분야의 신·구간을 취급하는 서점이 여럿 모여 있고, 조금 걸어가는 거리에 '시네마 북숍'(Cinema Bookshop)과 SF전문의 유명한 대형체인점

'포비든 플래닛'(Forbidden Planet)이 있다. '포비든 플래닛'은 SF문학, SF영화, SF펜시상품, 만화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낯익고 같은 곳이고, '시네마 북숍'은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영어로 출판되는 모든 영화관련 서적을 구해서 전세계 어디로든 보내주는' 전문서점이다. 대영박물관 앞의 서점으로는 '언스워스'(Unsworths) 서점을 권하고 싶다. 고전·역사·예술 및 사회과학 계 분야의 신·구간들을 취급하며, 지하매장엔 책 수집가를 위한 자료서적도 있다. 주말에도 문을 연다.

런던에는 이밖에도 시내 여기저기에 현책방들이 산재해 있는데, 대개 분야별 전문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가는 게 좋다. 런던의 업종별 전화번호부를 보면 '현책방(secondhand bookstore)' 섹션이 따로 있다.

다음으로 대학도시로 잘 알려진 옥스퍼드를 가보자. 옥스퍼드는 기차나 버스로 런던에서 1~2시간이면 닿는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직접 가는 버스편도 많다.

옥스퍼드 중심가는 아담한 규모라서 도보로 돌아볼 수 있다. 먼저 기차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형 현책방 '워터필즈'(Waterfield's)에 간다. 이곳에서 '옥스퍼드의 골동품 고서 및 현책방들'(Antiquarian and Secondhand Booksellers in Oxford)이라는 안내지를 얻는다. 현책방들의 간단한 소개와 지도가 나와 있어서 아주 요긴하다.

워터필즈와 함께 '썬톤스'(Thorntons of Oxford Ltd)서점도 대표적인 대형 현책방이다. 1835년부터 서점 및 출판사업을 시작한 유서깊은 곳이며,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각 분야별로 15종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썬톤스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demon.co.uk/thorntons>, 또는 <http://www.bookshop.co.uk>이다.

구경만 해도 배부른 책마을

옥스퍼드에는 약 30군데의 현책방이 있으며 물론 신간서점도 많다. '블랙웰'(B.H. Blackwell Ltd) 같은 곳은 옥스퍼드의 대학교재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매장 규모가 압도적인 대형서점이다.

웨일즈 지방의 와이 강변에 위치한 '하이-온-와이'는 쇠락해가는 작은 시골마을이었으나, 1961년 리처드 부스에 의해 책마을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성과 버려진 집, 창고들이 하나둘씩 현책방으로 바뀌어 오늘날 전세계 책벌레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1 하이-온-와이는 이제 세계의 책벌레들이 모이는 명소가 되었다.

옥스퍼드를 떠나 이제 글 컷머리에 소개한 책마을 하이-온-와이로 간다.

웨일즈 지방의 와이(Wye) 강변에 위치한 하이-온-와이는 쇠락해가는 작은 시골마을이었으나, 1961년 리처드 부스(Richard Booth)에 의해 책마을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성과 버려진 집, 창고들이 하나둘씩 현책방으로 바뀌어간 결과 오늘날엔 전세계의 책벌레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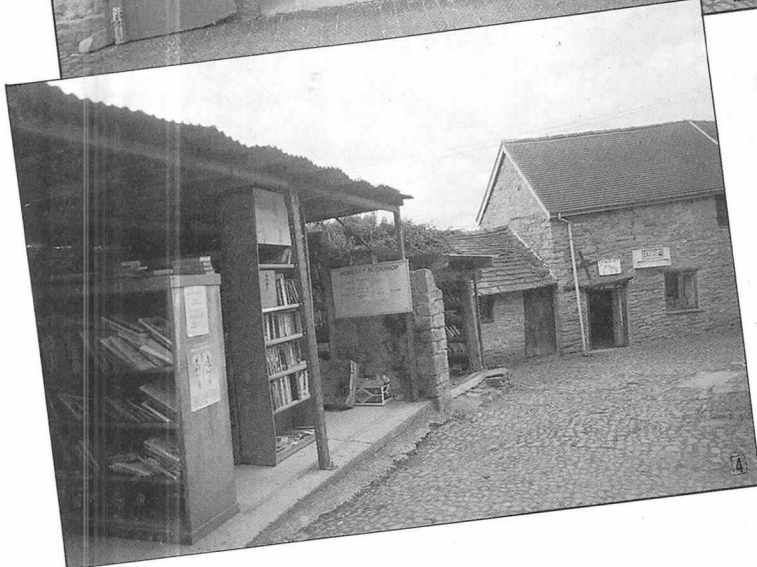
하이-온-와이로 가려면 런던이나 옥스퍼드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헤어포드(Hereford)에 내린 뒤, 다시 버스를 타면 된다. 헤어포드는 런던에서 2시간, 옥스퍼드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헤어포드에서 하이-온-와이까지의 버스편은 하루에 6회 정도 있으며, 때로 차선도 없는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약 1시간 가량 가면 닿는다. 버스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하이관광안내소(Hay Tourist Information Bureau)에 간다. 이곳에서 숙박할 곳도 소개받고, 하이의 현

책방 안내지도 받는다.

하이-온-와이에는 대학도서관을 연상케하는 매머드급 현책방들이 포진하고 있다. 40만권, 20만권 규모의 서가들을 접하면서 글쓴이는 솔직히 말해 너무나 많은 책들에 질려버릴 정도였다.

책마을을 처음 시작했던 '리처드 부스 서점'(Richard Booth's Bookshop)은 40만권 이상의 책을 갖추고 있는 마을내 최대규모의 현책방이다. 그밖에 매장이 몇 군데 더 있어서 하이-온-와이 안에서 체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 성(城)을 비롯한 몇 군데에 '정직한 서점'(honest bookshop)이라는 옥외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곳은 말 그대로 손님들 각자가 책을 고른 뒤 책값을 요금함 안에 집어넣고 가져가는 무인서점이다. (표지 사진 참조)

하이 시네마 북숍(Hay Cinema Bookshop) 역시 20만권 규모의 대형서점이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분야의 책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서점 앞마당에 책으로 쌓은 피



- 2] 마을 내 최대 규모의 헌책방 '리처드 부스 서점'. 마을에 매장을 몇 군데 더 갖고 있다.
- 3] 오래된 성, 버려진 집, 창고들이 하나 둘씩 헌책방으로 변해 책마을이 형성됐다.
- 4] 해이성 안을 서가로 꾸민 서점.
- 5] 해이성 앞의 옥외점포 '정직한 서점', 말 그대로 손님 각자가 책을 고른 뒤 책값을 치르는 무인서점이다.
- 6] 20만권 규모의 대형서점 '해이 시네마 북숍'. 서점 앞마당에 책으로 쌓은 피라미드가 명물이다.

라미드가 명물이다.

책마을 운동도 검토할 만

그밖에도 사진관련 전문서점, SF전문서점, 아동도서·시집·동유럽·외국어·군사학·지도·사회과학·인문과학·의학·철학·역사·문학·예술·신학·원예 등 모든 전문분야를 다루는 서점 30여군데가 있으며, 특히 대형서점은 매우 세분화된 분야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이탈리아문학 관련 서적'이라는 주제가 붙은 서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리처드 부스 서점에서는 국제적인 책마을 건설 운동(The International Book Town Movement)의 소식지인 《부스 가제트 Booth's Gazette》를 발행하고 있다. 최근호인 1996년 봄호에 따르면 이미 벨지움에 한 군데, 프랑스에 두 군데의 책마을이 있으며, 그밖에 미국·네덜란드·일본·캐나다·말레이시아·노르웨이·스위스·한국 등에 책마을

건설운동이 진행중이라고 한다.(한국은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추가 정보는 없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책마을' 운동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국할 때엔 출발날짜에서 하루이틀 정도 일찍 여유를 두고(주말로 잡는 게 좋다) 런던에 돌아올 것을 권한다. 소문난 벼룩시장인 캠덴 마켓(Camden Market)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연극·영화 전문서점이며 지하에 작은 무대까지 갖춘 오프스테이지(offstage)를 비롯한 몇몇 알찬 헌책방들이 있다.

그밖에도 캠덴 마켓에는 의류·액세서리·음반·가구·전기·전자제품·세계 각국의 민속 공예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모여 있다. 참신하고도 경제적인 기념품을 구입하기엔 더없이 좋은 장소이며, 구경만 하고 다녀도 배가 부르다. ❖